
		보 도 자 료		<div>2025년</div> <div>수도권매립지 종료</div> <div> 인천광역시</div>	
		배포일자	2021년 5월 3일(월) 총 4매		
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담 당 자	• 교통안전팀장 이진선 ☎440-3861 • 담 당 자 박명국 ☎440-3866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어린이 교통안전·학대 방지 강화 ‘주력’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위한 종합대책 마련...보고회 통해 세부 정책 조율 -
- 지난 달 아동학대 차단 위한 자문위 회의 시작...매달 정책 점검 보완키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학대 방지 등 전반적인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달 경찰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초등학교 264개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인천시는 3일 시청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시는 먼저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장비(CCTV)와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을 연내 100%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CCTV의 경우 233대를 추가 설치해 기존

CCTV를 포함, 총 384대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옐로카펫은 125개교에 257개소가 추가 설치되며, 총 264개교 436개소로 확대된다. 학교당 평균 1개 이상의 옐로카펫이 설치되는 것이다.

특히 시는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인천형 표준모델’을 마련, 연수구·서구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도막형으로 설치되는 옐로카펫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색이 벗겨지고 바래짐에 따라 이를 블록형으로 개선해 내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횡단보도 주변 파라솔 및 방호울타리도 노란색으로 교체해 시인성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시는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투광기 등도 조사 요구사항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가 30km/h 이상인 18개소에 대해 속도하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3개소에 대해 하향 심의를 완료했다. 이외 지역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화물차 통행 미제한 구간 108개소에 대해서도 통행 제한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화물차 통행제한 미지정 구간 검토 용역’ 및 화물물류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인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공사장으로 인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현행 건축공사 착공전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어린이 보호 부분을 강화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1.10월)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시간대 주·정차 집중단속 및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CCTV 설치사업(27억2,000만원·113개소)을 추진한다. 시는 관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예산액 1,021억 원을 투입해 30개소 4,697면을 확대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 주차장이 전면 폐지되는 만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삭제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인센티브 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통학로交通安全 지도 활동을 위해서 학부모 활동을 독려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실버交通安全지킴이(2,400명), 녹색 어머니회, 경찰관 등을 배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원 등 대상별交通安全교육을 확대하고, 가정 내交通安全 교육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交通安全리더’ 강사 60명을 양성해 학교로 찾아가는交通安全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운수종사자 교육에서 ‘交通安全’ 과목도 신설, 어린이 사고 예방과 바람직한 교통질서의식 함양을 위한交通安全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구성된 ‘어린이보호구역交通安全 강화 대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관련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交通安全 강화대책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련 대응 자문단도 지난 달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됐다.

지난해 9월 관계기관 합동 ‘학대·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더해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자문단’을 설치한 것이다. 시는 매월 1차례 관련 회의를 실시해 기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수정·보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린이交通安全 대책과 관련, “스쿨존 교통사고로 단 한명의 아이를 잃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交通安全 강화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첫 성과가 되도록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 사진은 16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only.webhard.co.kr)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